201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서강대학교 SOGANG UNIVERSITY

논 술 고 사 문제지

<경제학부/경영학부>

수험번호		지 원 모 집 단 위		성 명	

■ 유의사항

1. 제목은 쓰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할 것.
2. 답안 분량은 띄어쓰기 포함한 글자 수임.
3. 답안 작성 필기구는 반드시 흑색 또는 청색 펜이나 연필 가운데 통일된 한 종류의 필기구만 사용하여야 함.
4. 답안이나 답안지의 여백에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답안 이외의 불필요한 낙서나 이와 유사한 표현 또는 표시를 한 경우에는 0점 처리함.

<문제 1: 40%, 800~1000자>

다음 제시문들의 공통 논지를 간략히 제시하고, 이들 제시문을 두 입장으로 나누어 두 입장을 비교 대조하라.

[가] 웹이 보다 협업적이면서 덜 위계적인 공동체, 그리고 지식과 권력이 보다 고르게 분배되는 공동체를 창조하는 능력을 발휘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원대한 희망은 제라드 윈스탠리와 수평파(Levellers)에서 유래한 급진적이고 공상적인 사고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와이어드≫지를 포함한 여러 집단들은 십여 년 전부터 세계가 기술에 의해서 뒤엎어지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기술은 사회의 중심부에 집중되었던 권력을 주변부에 넘겨주고, 사회의 최상층에 집중되었던 권력을 최하층에 넘겨주고 있다는 것이다. 웹 2.0의 미래를 낙관하는 이들은 새로운 수평파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는 웹이 지니고 있는 혁명적인 권력 분산 기술 덕분에 다시 새로운 수평화 단계를 거치고 있다.

- 찰스 리드비터, 『집단지성이란 무엇인가?』

[나] 새로운 통신 기술은 이미 일부 사람들의 시간 개념뿐만 아니라 장소 개념도 바꾸고 있다. 이것은 거리, 공원, 광장, 그리고 시장 등의 공공장소에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 이러한 공공장소에서 현재 함께 있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 […] 포르투나티는 "공간에서 현존/부재의 모호한 차원은 전통적인 4대 소속감(가족, 나라, 인종, 장소에 대한 소속감) 가운데 하나인 장소에 대한 소속감을 재구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실제로 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소속감으로 변모한다."고 믿는다. 포르투나티의 생각은 서로 문자 메시지를 교환 중인 도쿄의 엄지족들은 같은 장소에 함께 '현존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미즈코 이토의 관찰과 공명한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그 초기 단계에 있는 '부재하는 사람들의 현존'을 인간의 대화 예절의 보다 장기적인 퇴보에서 볼 때 우려할 만한 새로운 단계라고 생각한다. 포르투나티의 말을 빌리자면 인공적인 대화가 자연스러운 대화보다 더 나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작은 화면이 등장하면서 우리는 이미 자연스러운 대화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쪼개서 그 일부를 텔레비전을 시청하는데 썼다. 그리고 우리는 텔레비전을 보며 이야기하는 방법을 너무도 빨리 배우게 되었다. 그 후 우리는 다른 누군가와 나누던 대화를 갑작스레 중단하고 전화기에 대답하는 법을 배웠다. 우리가 요즈음 하는 일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의 가상 대화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 간의 대화를 소홀히 하는 것이다. […] 우리는 이동 통신 기기에 대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앞에 있는 사람보다 전화 상대편에 더 주의를 기울인다. 이렇듯 자연스러운 대화가 평가 절하됨으로써, 방관자로서 그리고 이동 통신 이용자로서, 공간에서 우리의 현존이 은연중에 비워지게 되었던 것이다.

- 하워드 라인골드, 『참여군중』

[다] 권력이동 현상을 정보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의 추세라고 제일 먼저 주장한 토플러는 폭력, 부, 그리고 지식의 삼자 관계가 변화함에 따라 그 중심축이 지식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카스텔은 비슷한 맥락에서 뚜렌느의 말을 인용하며 권력의 편재화를 이야기 했다. […] 카스텔은 권력의 공간적 분포가 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권력이동은 권력의 근원이 변하기 때문에 생길 뿐만 아니라, 지식정보사회 혹은 네트워크 사회의 근본적인 구조 변동에 의해서 권력의 본질이 바뀌며, 또 더욱 중요하게는 기존에 권력관계를 유지해 왔던 모든 축에서 권력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당면한 현실은 권력이 공급자에서 소비자로, 기업에서 고객으로, 교수에서 학생으로, 정치가에서 유권자로, 또 매스미디어에서 인터넷 포탈로 점진적으로 이동하는 거시적인 추세에 있다. 우리는 권력이동이 일어나는 근본 원인을 네트워크 형태 자체가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즉 산업사회의 네트워크가 중앙으로부터 변방으로 연결선이 뻗어나간 방사위계형 네트워크라면,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변방끼리 연결이 조밀해진 수평형 네트워크이며, 이러한 형태의 변화가 권력을 이동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 네트워크가 발달함에 따라 변방끼리도 연결되어 정보가 흐름에 따라 중앙과 변방 사이에 존재하던 정보의 비대칭성이 급속히 해소되어 가는 것이다.

- 김용학, 하재경, 『네트워크 사회의 빛과 그늘』

[라] '던바(Dunbar)의 수'에 따르면, 우리가 진정으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150명을 넘기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소셜미디어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해준다. 개인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인관계를 확대시켜 가고 있지만, 우리의 '관계맺기 수용 능력'을 넘어선 것은 아닌가? 각종 소셜미디어를 비롯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지만 이들과 진지한 관계를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 상태를 유지하는 '지속적인 주의 분산'이 일어난다. 언제나 소셜미디어와 연결 상태를 유지한 채 새 소식을 올리거나 전해 듣는 소셜미디어식 생활방식은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킬 수밖에 없다. 정보의 과부하처럼 '관계의 과부하'가 일상화될 수 있다. 이러한 과부하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소셜미디어를 체크하고 하루 24시간이 부족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다. 존 피터스는 이렇게 수많은 가상적 수용자를 염두에 두는 태도를 '정신분열' 혹은 '자폐'로 설명한다. 그는 마이크로 셀러브러티(micro celebrity)들이 다중적인 상상의 독자를 동시다발적으로 상대해야 하는 분열적 상태에 있다고 규정한다. 상상의 청중과 친구, 동료 직장인, 친척 등이 공존하면서 '맥락의 붕괴'가 일어난다. 이용자 기반이 확대된 소셜미디어에서는 맥락의 붕괴, 즉 서로 다른 사회적 맥락에 놓여있는 독자가 공존한다. 이들이 다중적인 커뮤니케이션 맥락에 놓이게 되면서 주의 분산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김은미, 이동후, 임영호, 정일권, 『SNS혁명의 신화와 실제』

[마] 넷(net) 세대는 수많은 정보와 엔터테인먼트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의 홍수 속에 떠다니고 있다. 소비자는 게시판, 가격비교 사이트, 블로그, 인스턴트 메시지 등을 이용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간편하고 철저하게 제품과 서비스, 광고와 마케팅 전략을 조사할 수 있다. […]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제품을 디자인하거나 생산하고 유통하면서 선택의 다양성, 편리함, 선택적 맞춤, 통제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우리는 냅스터가 음악, 텔레비전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영화의 유통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켰을 때, 이런 현상을 처음으로 경험했다. 이제 파일 공유는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절반을 차지한다. 할리우드는 무척 못마땅하겠지만, 이는 넷 세대가 지적 재산권 및 저작권의 정의를 새로 협상하고 싶어 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넷 세대는 새로운 예술 형태를 창조할 뿐 아니라, 창의적이고 철학적인 개방성이 출현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미디어를 혼합하고 제품을 해킹하며 소비자 문화를 조작하는 능력은 그들의 타고난 권리다. 그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지적 재산 관련법이 앞길을 가로막게 놔두지 않을 것이다.- 돈 탭스코트, 앤서니 윌리엄스,『위키노믹스』

<문제 2: 60%, 1300~1500자>

제시문 [가]의 취지를 [나]의 맥락에서 찾아내고, [다] [라] [마] [바]의 논거를 활용하여 [가]의 주장을 확대 논의하라.

[가] 빈곤하고 불안정한 국가를 위해 경제정책 권고안을 만드는 일은 임상의학의 경우와 비슷하게 어려운 과제를 많이 안고 있다. 그러나 개발경제학은 아직 그 과업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IMF는 빈곤 함정, 작물학, 기후, 질병, 수송, 성 그리고 경제발전을 방해하는 수많은 병리 현상에 관련된 급박한 문제들을 간과해 왔다. 임상(臨床)경제학을 통해 개발경제학자들은 빈곤 함정의 근본적인 원인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임상경제학은 임상의학과 마찬가지로 치료를 개인의 측면이 아니라 '가족'의 측면에서 살펴봐야 한다. 만약 가나가 국제시장의 교역 장벽에 직면해 재화와 용역을 세계 시장에서 판매하지 못한다면, 만약 가나가 수십 년 전부터 내려온 지급불능한 채무 부담을 지고 있다면, 만약 가나가 새로운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기초 인프라에 대한 다급한 투자를 필요로 한다면, 만약 가나가 인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전과 난민의 부담을 지고 있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 가나에게 경제를 건전하게 운용하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다시 말해 IMF와 세계은행이 가나에게 무역자유화, 균형 예산 달성, 외국투자 유치 등을 권하는 것은 그 자체로 좋고 훌륭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권고들은 부국들의 무역 개혁, 부채 탕감, 기초 인프라 투자를 위한 외국의 금융 지원 확대, 평화 유지를 위한 서아프리카 전체에 대한 지원 등과 결합되지 않을 경우, 그저 헛된 말에 불과하다. 한 나라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세계 공동체가 그 나라의 가족이다. 이것은 밀레니엄 발전 목표에 입각해 있는 기본적 가정이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구촌 파트너십의 개념이다.

- 제프리 삭스, 『빈곤의 종말』

[나] 시장 경제에서 소득의 배분은 각 생산요소가 생산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에 따라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각 생산요소가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한 정도에 따라 생산 요소에게 돌아오는 소득은 달라진다. 따라서 생산성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더 많은 소득을 얻게 되고, 토지나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에 비해, 더 높은 소득을 얻게 된다. 그러나 사람은 타고난 능력이 각기 다를 뿐 아니라, 후천적으로도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 나갈 교육이나 훈련의 기회가 모두 다르다. 그 결과 시장 경제 체제에서 개인의 소득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사람이 모두 같지 않은 이상 소득에 어느 정도의 격차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그 격차가 너무 크게 나타나면, 그 사회를 유지해 나가는 데 심각한 장애 요소가 된다. 특히 시장의 경쟁에서 뒤떨어지는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은 국가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로서는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현상이다. 따라서 시장 경제체제에서 정부가 수행해야 할 역할은 지나친 소득 격차를 완화하여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다]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가 가난한 이유는 착취적인 제도 때문이다. 착취적인 제도 하에서는 사유재산권, 법질서, 온전한 사법체제 등이 뿌리내릴 수가 없고, 전국적인 엘리트층 또는 흔히 지역 엘리트층이 정치·경제적인 삶을 모조리 틀어쥐게 된다. 바로 그런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해외원조는 효율적일 수가 없다. 그런 제도 하에서는 해외원조마저 약탈당하고 의도했던 곳에 제대로 전달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가난한 나라가 당면한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되는 정권을 먹여 살리게 될지도 모른다.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이 포용적인 제도를 기반으로 한다면 착취적인 제도를 틀어쥔 정권에 원조를 해주는 것으로 문

제가 해결될 리 없다. - 대런 에이쓰모글루,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라] 원조는 주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간접적인 방식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발이나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원조가 서양이 관심을 갖는 주제이긴 하지만 성장과 개발의 관점에서 보면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게 만드는 존재이기도 하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목격한 2차 대전 전후의 성장 사례 중에 대외 원조 덕에 성공한 국가는 거의 없었다. 개방된 세계 무역체제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해외 직접투자 흐름, 국가 간 학습이 개도국의 성장에 더욱 중요한 동인이다. 아주 최근까지 개도국에 관한 서양의 논의는 대부분 개도국의 내부 동력이나 성장 과제보다는 원조나 무역, 일자리 및 인력 이동을 통해 선진국이 개도국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다. 암묵적으로 이러한 외부적인 상호작용이 변화의 주요 촉매제라는 가정이 깔려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는 불완전한 설명이면서 다소 자기도취적인 관점이다. - 마이클 스펜스, 『넥스트 컨버전스』

[마] 공적개발원조(ODA)의 형태를 띤 외국의 원조는 자본축적, 경제성장, 가계소득 증가 등의 과정이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외국의 원조는 세 경로로 흘러들어간다. 약간의 원조가 가계들로 직접 흘러가는데, 이는 주로 가뭄이 심할 때 식량원조 같은 인도적 긴급 구호를 위한 경우다. 더 많은 부분이 공공투자의 재원도달을 위한 예산으로 직접 흘러가고, 일부는 민간사업체들로 흘러간다. 후자의 경우 소액 금융 프로그램을 비롯한 기타 다양한 틀을 통해 민간 소사업체나 농장 개량에 외부의 지원 자금이 직접 제공된다. 만약 외국의 원조가 충분한 양으로 오래 지속된다면 가계를 최저생계수준 이상으로 상승시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자본 축적이 상승할 것이다. 그 지점에서 빈곤 함정이 깨지게 된다. 또한 가계저축과 세금을 재원으로 한 정부투자를 통해 성장이 자체 동력을 갖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외국의 원조는 동냥이 아니라 실제로는 빈곤 함정을 단번에 깨뜨리는 투자다. […]

거의 모든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아프리카의 통치구조가 매우 낮은 수준인 것은 분명하다. 재산권은 강제하기 어렵고, 폭력과 범죄가 심각하며, 부패가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다. 그러나 부패와 통치구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 자체로 과장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성장 지체에 부패와 취약한 통치구조가 끼친 영향이 심각하게 과대평가되고 있다. 사실 눈여겨봐야할 요점은 모든 빈국이 고소득국들에 비해 부패와 통치구조 측면에서 열악한 수준을 보인다는 점이다. 올바른 통치구조와 더 높은 소득은 함께 나타난다. 그 이유는 훌륭한 통치구조가 소득을 상승시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은 높은 소득이 통치구조의 개선을 낳기 때문이기도 하다. - 제프리 삭스, 『빈곤의 종말』

[바] 연중 지속되는 더위는 인간에게 적대적인 생물들의 번식을 조장한다. 기온이 상승하면 벌레들이 들끓게 마련이며, 그러한 곤충류의 체내 기생충도 더 빠르게 성숙하고 번식하게 된다. 우리는 병원체의 이러한 번식률을 전염병의 위험도를 재는 척도로 삼는데, 번식률 1은 한 사람의 전염병 환자에 대해 한 사람의 새로운 환자가 생기는 안정 상태를 의미한다. 디프테리아 같은 전염병은 그 번식률이 최대 8에 해당되는 질병인 데 비해, 말라리아는 그 수치가 90에 달한다. 더운 기후지대에서 벌레가 옮기는 질병의 위력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광포한 셈이다. […]

질병예방은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이며, 질병치료에는 종종 현지 의료기관에서는 제공할 수 없거나 환자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장기간의 약물치료가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1990년을 기준으로 볼 때, 열대질병에 걸린 사람들 대부분은 연평균 개인소득이 400달러 이하인 나라에 살고 있었고, 그들의 정부는 의료구제에 연간 1인당 4달러 이하를 쓰고 있었다. 사정이 이러하니 서구의 제약회사들이 새로운 백신을 개발해 상품화하려면 약 1억 달러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며, 열대지방 고객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 데이비드 랜즈, 『국가의 부와 빈곤』